



전주대 축구부 출신, 발전기금 2000만원 전달

전주대학교 축구부 출신 김성현, 류승원, 문승민, 이윤재 선수가 지난 27일 대학본관 4층 접견실에서 대학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경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선수들을 대신해 각 선수들의 부모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김성현(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류승원(안산 그리너스 FC), 문승민(충북 청주 프로축구단), 이윤재(부산 교동공사 축구단) 선수는 재학 중 전주대학교가 2021년 U리그 왕중왕전 우승, 2022년 제18회 1.2학년 축구대회 우승, 2023년 제8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현재는 각 구단에서 주요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대학교 축구부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 큰 성공을 기원하며, 대학 또한 후배 선수들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민일보 장수지사, 교육재단에 장학금 기탁

장수군은 전북도민일보 장수지사(지사장 노정철)가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2백만원의 장학금을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정철 지사장은 “장수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장수군 출연 공익 비영리 법인으로, 이번 기탁금은 장수군 학생들의 학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훈식 이사장은 “전북도민일보 장수지사의 기탁은 장수 교육 현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후원해주신 의미가 잘 실현되도록 위해 장수군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탁은 지역 언론이 단순한 보도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유니드비터플러스, 정읍산불 이재민에 1000만원 기부

목재 제조 전문기업 유니드비터플러스가 정읍 소성면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주)유니드비터플러스(대표이사 한상준)와 함께 소성면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유니드비터플러스는 지난 4월 22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날 기탁식을 통해 기업의 나눔 의지를 다시 한번 전했다.

유니드비터플러스는 2022년 유니드의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이 기업은 MDF, 마루 등 목질관장재를 비롯한 건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 ‘울고다’를 론칭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구·인테리어를 넘어 건축 자재 분야로 확장을 나가고 있다.

기업은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통놀이 활성화 · 주민화합 도모’

2025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 성료... 6개 읍면 주민 240여명 참가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무주군민속경기협회(협회장 이광복)가 주관한 2025년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가 28일 무주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통놀이를 활성화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6개 읍면 주민 등 240여 명이 참가 고리 갈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경기를 펼치며 친목을 다졌다.

주민 이진복 씨(74세, 적산면)는 “전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서 윷놀이 종목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즐겼던 민속경기 덕분”이라며 “우리의 전통도 지키고 친목도 다지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 민속경기

로 우의를 다질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우리가 지켜온 ‘무주다움’이 무주발전은 물론, 주민 행복과 건강을 증진하는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자 대상으로 인바디 측정기로 정확한 현재 체격을 측정하고, 무주군체육회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무주군민속경기협회는 민속경기 보급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르신·여성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대선 투표 독려 캠페인 참여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일깨웠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남원시는 무주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장수군수를 지목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투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며,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께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청 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장소에 투표 독려 홍보물을 부착하고,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안내 전단과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시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등 시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

황인홍 무주군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8일, 소중한 한 표의 권리 행사를 독려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해당 캠페인은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순수 민간 캠페인으로써,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며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지목을 받아 진행했으며, 다음 주자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지목했다.

이날 황인홍 군수는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가 귀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평일인 만큼 미리 시간을 내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공식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LED 전광판, 현수막 게첨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활발한 선거 참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순창 담은 초콜릿’ 적극 홍보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충철)는 4월 한 달간 NHpay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순창 담은(DAMBLUN) 초콜릿’을 제공하는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하면서, 순창 대표 농산물로 만든 초콜릿을 적극 홍보하였다.

지난 28일에는 사은행사의 당첨 고객을 선정하여 개별 안내하였다.

‘순창 담은(DAMBLUN) 초콜릿’은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에서 순창의 고추장, 블루베리, 밤 등을 원료로 하여 3월 14일 출시한 프리미엄 디저트로써, 순창군내 카페 5곳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순창고추장을 첨가해 매콤달콤한 ‘고추장 두바이 초콜릿’, 고소한 밤을 가득 담은 ‘밤 트러플 초콜릿’, 고추장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고추장 트러플 초콜릿’, 상큼한 블루베리 식감을 더한 ‘블루베리 초콜릿’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마음헤아림’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는 재가인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위한 ‘마음헤아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판정을 받은 재가 암환자와 가족 50여 명이 대상인, 상반기는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반기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10회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건강관리 위한 기초검사 △암환자관리 교육 및 영양교육 △신체활동 위한 건강체조 △근력 강화운동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공예요법, 색채 심리치료, 아로마요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전북광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 이론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가족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1학기 성료

정읍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3학기 운영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정읍시가족센터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어, 한국의 법제도 역사와 문화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다뤄며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교육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춰 이민자들의 체계적인 정착과 향후 비자 연장·국적 취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주말 운영되는 4단계 과정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총 100시간 동안 진행된다. 센터는 이민자들이 각 단계별 교육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동충동, ‘행복나눔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호응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지난 3월부터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오는 건강교실 ‘행복나눔 건강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나눔 건강플러스는 1일 1가구 소동행정의 일환으로, 간호직 공무원이 매월 1회 관내 5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복약관리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여름이불 지원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산자 동장, 민간위원장 김희민)는 28일, 1일 1가구 소동행정의 일환으로, 간호직 공무원이 매월 1회 관내 5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복약관리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이번 지원에서는 관내 계층에 취약하고 생활 여건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28가구에 여름이불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복지사 각자대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김희민 위원장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맛벌이 가족 ‘건강UP! 해피 패밀리’ 참여

남원시는 지난 24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10가족에서 총 28명이 ‘건강 UP! 해피 패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리산 노고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등산 활동을 통해, 바쁜 일정을 보내는 맞벌이 가족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한 한 가족은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웃고 대화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건강 UP! 해피 패밀리’ 프로그램은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는 남원시가족센터 가족생활팀(635-5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